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12. 27.(목), 15:00
2.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우정원*, 임원정, 이주희, 신하운, 정연화, 유제욱, 차안나, 문지영, 김영주, 이정화,	김희선(간사)
불참인원	2	안홍식, 장남수**	

\*의장 \*\*부의장

### 4. 안 건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제2호의안: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

###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차안나 학생평의원의 요청으로 이민하 차기 총학생회장이 오늘 회의에 참관함을 설명하고,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나. 간사는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대학평의원회 심의내용 및 교무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한 개정 학칙을 설명한 후 의장은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6. 안건 심의 및 자문

####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1) 의장은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중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공공정책학전공 수여 학위명 변경에 대하여 신하운 평의원은 신설되는 정책과학대학원의 정치학석사(공공정책학) 학위와 일반대학원의 정치학석사 학위 명칭의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수여 학위명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문의하다.

- (3) 간사는 정책과학대학원의 정치학석사(공공정책학) 학위명 신설은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 학사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외부 장학 사업과도 연관이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로 학위명(세부전공)을 기재하고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로 학위명만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정책과학대학원의 경제학석사(공공정책학) 폐지는 2017학년도 전기부터 금융경제 세부전공의 신입생 모집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하다.
- (4)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의견이 없어 학칙 및 대학원 개정안 심의를 종료하다.

## 나. 자문사항

### □ 제2호의안: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

- (1) 의장은 제2호의안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교 참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처 참석자: 김상택 기획처장, 최혜련 예산팀장)
- (2) 기획처장이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3) 이주희 평의원은 의과대학 기자재 예산은 사용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예산팀장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다른 계정으로 편성되어 기자재 예산에서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당초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추후 확정되어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답하다. 이어 기획처장은 의과대학(마곡) 실습용 기자재 구입 재원 중 의과대학 기금 인출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4) 의장은 의과대학 기금 등 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도 학교 총 예산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팀장은 수입 부분에서 기금인출로 해당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교비 예산에 함께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5) 차안나 평의원은 단과대학별 기금이 교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으나 단대별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묻고, 예산팀장은 수입부는 다양한 항목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등록금 수입을 포함한 다양한 수입과 지출이 교비 재원 안에서 각 계정별로 예산 편성되기에 각 세부 재원별로의 예산 편성 구분 기재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다.
- (6) 이주희 평의원은 본교 기부금 규모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기부금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 많이 줄어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다. 이어 이주희 평의원은 평년도에 비교하여 기부금 수입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묻고 기획처장은 기부금은 확정된 수입이 아니므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설명하다.
- (7) 이주희 평의원은 학교가 재정문제에 신경을 써서 타 대학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라도 기부금 수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다.
- (8) 문지영 평의원은 대학원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감소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것인지 묻고, 대학원생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감소분에 대하여 논문심사료 등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여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다. 예산팀장은 장학금을 운용하는 장학복지팀에서 올해 편성한 예산에서 장학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설명하고, 해당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인지 건의하겠다고 답하다.
- (9) 신하윤 평의원은 국가장학금 감소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 예산팀장은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정한 소득분위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본교는 국가장학금 지급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소득분위 기준 충족 부분에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다.
- (10) 정연화 평의원은 기타국고 수입이 25억원 감소한 사유와 직원 급여 회계처리변경 및 발령사항 반영에 따른 10억원 감소가 의미하는 바를 묻고, 예산팀장은 국고감소분은 재정지원사업 지원비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한 것이며, 직원 급여 회계처리변경은 산단 겸직직원 회계처리 방식은 당초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결산 시 산단전입금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산단회계에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산단 결산처리방식이 변경되어 겸직직원 급여를 교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다.
- (11) 의장은 연도별 기금인출 현황 및 연도별 기금 변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기금 인출에서 토지 및 건축은 의과대학 및 교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답하고, 사업비 부분은 2017년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증가, 2018년은 의과대학 이전 관련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증가, 2019년은 의과대학 이전 사업 종료와 관리운영비 증가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다.
- (12) 의장은 2019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19학년도 당초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13) 교원급여와 관련하여 이주희 평의원은 2018년에 교원 충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도 교원급여 예산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예산팀장은 교원인사팀 자료협조를 통해 2019년 교원 충원계획 및 인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답하다. 이주희 평의원은 교원 충원은 교수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다.
- (14) 차안나 평의원은 강사법 변경을 반영한 시간강사료 예산을 15억원 증가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한 것인지 문의하고 기획처장은 아직 진행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타 학교 동향 등을 살피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차안나 평의원은 강사법 시행으로 인하여 교원 및 강사 수 감소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진행과정에서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15) 임원정 평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국제교류 지원, 사회적 책무 사업 지원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국제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답하다. 이어 임원정 평의원은 연구·학생경비 감소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 예산팀장은 국가재정지원사업 종료 및 의과대학 이전사업 종료에 따른 지출 감소 요인이 크며, 국제처 사업은 신규 사업 시행 및 기존 사업의 유지, 사회적 책무 사업은 사회봉사팀의 외부봉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정보통신처의 행정시스템 및 학사시스템 개편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16) 유제욱 평의원은 학생경비와 교외장학금이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새로운 국고사업 지원금은 해당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신하운 평의원은 재정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지속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요청하다.
- (17) 이주희 평의원은 기부금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유지 또는 증가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급격히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이어 2019년 기금인출 사업비로 534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묻고 예산팀장은 기금간이관 159억원을 제외하고 사업비로 사용되는 375억원은 연구, 장학, 특정목적에 위한 기금인출로 우수교원 지원, 역량강화 사업지원, 교육환경개선 등에 사용되며 수입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학교 사업을 유지하고 특성화 등 학교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됨을 설명하다.
- (18) 의장은 학교가 기금의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기금인출 사업비를 우수한 교원 충원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학교 전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커뮤니티가 소통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19) 이주희 평의원은 교원 급여 예산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어 2019학년도에 교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획처장은 본교의 교원충원을 103%는 여러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고 교육부 기준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20) 의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방식을 교수 충원을 줄여서 전체 예산 절약을 통해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과 우수한 교원 충원으로 외부 사업 및 연구비 수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때 후자의 의견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처장은

이 의견에 동의하고 교원총원율은 계속 높게 유지되었으나 교수업적인용율은 타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신규 교원 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다. 의장은 정년보장심사, 교원승급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21) 정연화 평의원은 교원퇴직금, 직원퇴직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 예산팀장은 기존에 퇴직충당금은 유동부채로 설정하였으나 올해 내부감사 결과 퇴직충당금은 고정부채화하라는 의견에 따라 향후 퇴직 충당금을 고정부채로 충당하기로 하고 퇴직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의 유동부채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자금 반영하였음을 답하다.

(22) 신하운 평의원은 시간강사료 15억원은 내년 하반기 한학기분을 반영한 것인지 묻고 예산팀장은 관련법 변경에 따른 시간강사 급여 체계는 교원인사팀과 논의 중이며, 해당법 시행시기인 하반기분을 편성한 것임을 답하고 향후 시간강사 급여의 책정방향에 따른 변동분이 있을 수 있음을 답하다.

(23)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학교의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학년도 예산안 자문을 마치고 의료원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기로 하다.

(의료원 참석자: 임기환 기획조정실장, 이병무 기획예산과장, 남상호 경리과장)

(24) 기획예산과장은 서울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NICU 사태 관련 목동병원 개선현황 및 진료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2018회계년도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25) 의장은 은행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차입금은 은행에서 차입하였고, 법인차입금은 법인에서 대여한 장기차입금임을 설명하다.

(26) 김영주 평의원은 현재와 같은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병원 정상화에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완전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은행차입금은 5년 거치 20년 상환 예정이고 병원이 수익을 내는 시기는 3~4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교전출금 및 법인차입금도 가능하면 빨리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김영주 평의원은 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 확보가 되었는지 문의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병원에는 수련의를 둘 수 없도록 법이 변경되어 인턴 및 레지던트는 없으며 의사 수는 330개 병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다.

(27) 유제욱 평의원은 인건비의 급여 유예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은 교원인건비는 일부 교원이 거절하여 급여 유예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직 급여 유예는 보직자는 20%로 하였고 일반직은 노사합의에서 10%로 결정되어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유제욱 평의원은 급여유예는 병원과 개인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28) 이주희 평의원은 서울병원에서 의료 관련 교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비전임교원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주희 평의원은 병원의 인적 구성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에서도 노력했으나 어려운 점이 있어 양 병원 모두 비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다.
- (29) 유제욱 평의원은 법인차입금이자 1.4억원이 법인차입금 180억원에 대한 것인지 묻고, 기획예산과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유제욱 평의원은 이자 금리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경리과장은 법인의 180억원 대여는 출자 개념이 아니라 대여이므로 시중책정 정기예금 수준으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할 계획이며 원금도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 (30) 의장은 2019회계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이 2019회계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31) 의장은 목동병원 예산의 서울병원 차입금 정리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서울병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서울병원 준공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고 답하다. 이어 의장은 양 병원의 재무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경리과장은 병원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져 있어 회계와 예산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답하고, 일시적으로 차입금은 서울병원이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목동병원에서 차입금 등을 관리해서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회계를 이관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다만, 양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이화의료원 개념이므로 외부에 예결산 공고를 할 때에는 의료원 체계로 공시를 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32) 문지영 평의원은 규모가 서울병원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목동병원 인건비가 서울병원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병원은 300여 병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의료진 규모는 500병상 규모에 맞추었기 때문에 목동병원보다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였다고 답하다.
- (33)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2018학년도 추경예산안과 2019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및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8년 12월 27일

의 장 우 정 원

